

환율 급등세 꺾였다

어제 원달러 환율 1,014원 ... 13일만에 하락세로

코스피지수 14P 상승 국제 유가 큰 폭 하락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개입 영향 등으로 급등 13일만에 하락 반전하며 1,010원 초반대로 떨어졌다. 또 미국발 신용경색 여파로 급락세를 보이던 주식 시장도 나흘 만에 반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남아있어 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달러가치가 최저치로 추락한 반면 현금 대체 수단인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국제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환율 장중 17원 급락 - 당국 실개입 추정=18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5.20원 급락한 1,014.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13거래일 만에 꺾인 것으로, 전일 대비 하락폭으로는 2005년 2월22일(17.20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장중 1,030원선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영향으로

1,010원대로 떨어졌다.

특히 이날 시장은 당국이 구두개입에 이어 실제 매도 개입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면서 매수심리가 한풀 꺾였다. 이날 개입 규모는 약 10억달러로 추정됐다.

한편 전날 3년5개월 만에 1,060원대로 진입했던 원·엔 환율도 이날 1,040원대로 급락했다.

◇코스피 나흘 만에 반등=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에 비해 14.31포인트(0.91%) 오른 1,588.75로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회(FRB)가 베어스턴스 사태로 야기된 금융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파격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함에 따라 시장의 공포심이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급락세에서 벗어나 다우지수가 0.18% 오를 만큼 진정세를 띤 것도 국내 증시 안정에 주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2의 베어스턴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등 여전히 국제금융시장이 살아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자회사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은 이날

한국은행이 적절한 외환시장 개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회사는 "한국은행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원화 약세에 대응해 적절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정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 확보 비상 - 유가 하락속 달러 가치 최저치 추락=17일(현지시간) 달러와 가치의 추락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를 비롯한 상품 가격은 현금을 확보하려는 매도세 속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지난주보다 4.53달러(4.1%) 떨어진 배럴당 105.68달러에 거래를 마쳐 17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반면 금값은 강세를 이어갔다. 이날 금 가격은 온스당 1천33.90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1천2.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달러화의 가치는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또다시 최저치로 추락했다. 이날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 달러당 95.75엔까지 떨어지면서 12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최복호 자선바자회 패션쇼 의류생산업체인 (주)씨엔복호가 18일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광장에서 한국부인회와 함께하는 '최복호 자선바자회 패션쇼'를 진행해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중소, 성장·활동성 좋지만 수익률은 대기업에 뒤진다

대기업·협력기업 경영성과 분석

중소기업이 거래 대기업보다 매출액 증가세가 높고 자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더 낮은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중소기업간 시장원리보다 힘의 원리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장남기 박사는 18일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경영성과 분석'이란 책자에서 대기업 27개사와 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833개사의 경영성과를 재무제표를 활용, 분석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책자에 따르면 2001~2006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이 6.82%, 협력 중소기업은 5.20%로 수익성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보다 앞섰다.

다만 전기·전자와 기계산업 등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았다. 특히 협력 중소기업은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평균(5.58%)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았다.

2002~2006년간 매출액 증가율과 유형자산 증가율을 통해 본 성장성의 경우 업종별 편차가 있지만 협력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대

기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총자산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등도 협력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아 활동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협력 중소기업이 성장성과 활동성이 대기업보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와 기계산업을 제외하면 대기업보다 수익성이 나쁘다는 것.

장남기 박사는 이에 대해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거래관계에서 시장원리보다 힘의 원리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스럽지만 유추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자료에 의거해 그 이유로 ▲대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 반면 중소기업은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수탁 중소기업은 수탁기업간 과당경쟁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 ▲대기업의 경영방식이 단기수익위주로 전환되면서 납품단이 인하 및 비용 전가에 주력한 점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50개 생필품 물가지수 만든다

통계청 152개 품목 중 서민 많이 쓰는 품목 포함

이명박 대통령의 '생필품 50개 집중관리' 발언과 관련해 체감물가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수 개발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당시 현재 발표하고 있는 물가지수와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간에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새로운 지수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현재 새로운 지수 개발을 검토하고 있

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통계청 생활물가지수 152개 품목 중에서도 서민들이 많이 쓰는 품목을 골라내서 지수를 만들 계획"이라며 "대통령께서 언급하신대로 50개 품목이 될 지, 또는 그 이상이 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처들은 전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물량의 수급을 통해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 50개에 대해 우리가 집중 관리하게 되면 전체적 물가는 상승해도 50개 품목은 그에 비례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하자 "50개 생필품"의 진의 파악에 나선 바 있다.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새 지수 개발과 함께 이들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체감물가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식료품과 연료비, 서비스요금, 공공요금, 교육비 등 152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를 매달 공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기업 규제비용 78조원

시장경쟁 저해 ... 기업당 2,436만원 지출한 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규제에 의해 감내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사업체당 평균 2천43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한국의 경제규제비용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지수를 이용, 베이스라인 분석 등을 통해 규제의 기회비용을 추정해 결과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78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규제지수는 OECD가 우리나라

를 포함한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통제, 경쟁제한, 해외무역, 투자장벽 등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측정해 지수를 매긴 것이며 베이스라인 분석은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요인이 없다고 가정할 때 달성 가능한 베이스라인 국민소득과 실제 국민소득을 비교하는 분석방법이다.

총 규제비용에는 시장규제비용, 행정조사부담비용, 납세순응 비용이 포함됐다. 추정결과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200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9.2%에 달했으며 GDP대비 21.2%인 조세부담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488만원을 규제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연구소는 78조2천억원의 총 규제비용을 9개 산업과 대·중·소 등 기업규모별로 부담하는 정도를 비교한 결과 산업 전체로 볼 때 규제비용은 사업체당 평균 2천436만원, 종사자 1인당 515만원, 임금총액의 7.3%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공공·사회·개인 서비스업, 금융·사업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이 전체 규제비용의 74.2%를 부담하고 있어 특정산업으로 규제부담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對韓 반덤핑 규제, 개도국 73%

선진국보다 훨씬 많아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3%나 돼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달 1일 기준 19개국으로부터 101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인도, 중국,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도국에 의한 규제는 73%에 달했다.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제소는 1996년

이후 선진국에 의한 제소보다 많아졌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철강(25건), 섬유(17건), 전기전자(4건) 제품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화학, 철강, 섬유산업에 집중돼 있으며, 화학과 섬유 분야는 주로 개도국, 철강 분야는 주로 선진국이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규제가 많은 철강산업은 우리가 선진국들에 비해 우위에 있는 반면, 개도국의 반덤핑 조치가 집중돼 있는 화학과 섬유는 우리나라와 개도국간 경쟁관계에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직역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엠코코리아(광주공장) 사무직(여)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3/20	062-970-8212
기전산업(주)	생산직 사원(자동차부품조립)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3/21	062-954-0330
니켈하나	초급이상 웹사이트 제작 웹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21	062-574-1193
㈜새날건설	건설보수강(방수)현장관리 현장시공	고졸/경력2년	1600~1800	03/22	062-261-0031
㈜중연테크	경리, 회계, 담당업무	고졸/경력3년	1400~1600	03/22	062-955-6446
㈜아이텔서비스	LG텔레콤 서부고객센터 상담사(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3/22	062-601-7213
장원교육문화(주)	[광주/전남]교육직 관리자 및 교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2	051-465-6664
한국알프스	2008년 정규직 신입/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4	062-950-2116
중앙평생교육원	관리사무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4	062-521-9930
㈜동일홈푸드	동일홈푸드 정규직 사원(웨이치레스)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25	010-5118-7298
㈜지이드림 디자인그룹	경리, 회계 담당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26	062-225-0401
실내건축사론	인테리어 기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6	062-671-4994
신화인테리어	브랜드 매뉴얼 공사관리 경력직	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3/28	02-512-2700
동화코퍼레이션(주)	해외영업관리 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8	062-971-472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외국인 국내 상장 주식 보유 비중 2월말 30% ... 6년8개월만에 최저

국내 증시에서 매도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들의 상장 주식 보유 비중이 6년8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상장 주식 보유 비중이 30.9%(보유액 265조5997억4977원)로 전월의 32.3%에 비해 1.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01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 비중은 2001년 5월과 6월에 각각 30.90%, 30.70%를 기록한 이후 줄곧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오다 2004년 7월 43.9%로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하락세를 겪었다.

외국인은 2월 중 유가증권시장에서 결제기준으로 3조3천67억원 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해 9개월 연속 주식 '순매도'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인 유 들어 1월과 2월에 순매도한 규모는 각각 9조7천951억원, 3조3천67억원으로 총 13조1천189억원에 달했다.

2월중 국적별 주식 순매도 규모는 미국 국적 자금이 2조8천44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록셈부르크 6천663억원 ▲영국 6천361억원 ▲케이만아일랜드 1천714억원 등의 순이었다.

미국 국적의 뮤추얼펀드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계속 이탈하는 것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로 국내 주식 등의 위험자산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천195억원 순매도해 2개월 연속 '팔자'를 지속했으며 상장 주식 보유 비중은 16.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연합뉴스

석유공사, 몸집 키운다

지금보다 5배는 커져야 세계 메이저사와 경쟁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석유공사를 현재보다 5배는 키워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몸집 키우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지경부 업무보고에서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석유공사의 몸집이 지금보다 커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석유공사가 지금보다 5배는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현재 법정 자본금이 10조원이지만 납입자본금은 4조7천억원선이다. 일반 기업으로서서는 작지 않은 규모지만 거대한 세계적 석유 메이저 앞에서는 '일엽편주'다.

미국의 석유산업 주간정보지 PIW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석유공사는 세계 석유기업 가운데 98위에 불과하다.

하루 원유 생산량도 5만 배럴선으로 매장량 2천43억 배럴에 하루 1천47만5천 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1위 석유기업 사우디 아람코 생산량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합뉴스